< 고려시기 양온서의 기능과 역할 > 2019.9.21.(토) 서명원

Ⅰ. 서언

- 양온서(良醞署, 사온서(司醞署))는 술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의 공식 기구, 양온령(良醞令), 양온승(良醞丞) 등 별도의 관리를 두고 주례(酒醴)의 공급에 대한 일을 관장[1)]
- 명칭의 변화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직장(職掌)의 큰 변화 없이 고려 말까지 존속하였으며, 조선 개국 이후에도 유지(司醞署)
- 양온서에 대해서는 설치 연혁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으며,[2)]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으로서 관심을 받지 못하였음
- 술의 생산과 유통이 고려 사회에서 차지한 사회/경제사적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술 전담 관청에서의 국용(國用) 술 생산과 유통, 소비에 대한 연구 필요
- 아울러 양온서의 기능이 단순한 술의 공급 역할에서 나아가 국가 의례와 국왕의 통치 행위 보조, 친위세력 육성 및 왕권 강화와 연관되어 있음을 규명

Ⅱ. 양온서의 성립과 변천

1. 양온서의 설치 배경

- 고려 이전 삼국 및 통일신라시기의 경우 국왕이 주관하는 연회(御宴)의 술 사용[3)], 왕이 장병을 위로하기 위해 술자리를 베푸는 경우[4)], 노인에게 술과 음식을 사여하는 경우[5)], 왕이 왕비를 맞아들이기 위해 폐백으로 술을 보내는 경우[6)] 등 다양한 술 관련 국용(國用) 사례가 보임
- 양온서 이전 술 관련 관청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국왕의 연회, 포상 등에 사용된 술은 그 양과 질에서 일정 수준이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특정 관청 또는 부서에서 주조되었을 것으로 보임[7)]

---

1) 『高麗史』 卷77, 志 31, 百官 2, 司醞署
2) 박용운, 2019, 『고려시대 사람들의 식음생활』, 경인문화사, 228쪽에서 양온서의 성립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음
3) 삼국유사 > 卷 第一 > 紀異第一 > 奈勿王金堤上, 삼국사기 卷第十一 新羅本紀 第十一 > 憲康王 > 七年春三月, 삼국사기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 武王 > 三十七年春三月
4) 삼국사기 卷第五 新羅本紀 第五 > 太宗 武烈王 > 七年秋八月二日
5) 삼국사기 卷第八 新羅本紀 第八 > 聖德王 > 三十年
6) 삼국사기 卷第八 新羅本紀 第八 > 神文王 > 三年春二月
7)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卷第三十九 雜志 第八 > 직관(職官) 中 '춘전(春典)'을 두고 ① 王廟祭祀 관계의 업무를 관장한 관서로 보는 견해(三池賢一, 1971, 「新羅內廷官制考」上, 『朝鮮學報』 62, 45쪽), ② '春'자에 술의 뜻이 있다는 것과 內廷 官制에 술 만드는 관청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등에 의거하여 춘전을 왕궁 내에서 양조의 업무를 담당한 관청으로 보는 견해(이인철, 1993, 『신라정치제

- 신라시기에 비해 통치체제가 더욱 정비되고 국가적 의례가 강화된 고려시기의 경우 길례(吉禮) 등 각종 국가 의례가 수시로 행해졌으며, 이 경우 제주(祭酒)로서 양질의 주례(酒醴)가 다량으로 필요
- 국왕이 주관한 연회 또한 왕의 즉위, 승전(勝戰), 왕손의 탄생, 국왕의 탄일(誕日) 등 국경(國慶)의 축하, 충신/효자/노인 등에 대한 포상, 외교 사절에 대한 접대 등을 위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왕과 신하간의 소통 및 충성 유도를 위한 치주(置酒)의 경우도 多數 확인됨. 이 경우 역시 연음(燕飮)을 위한 양질의 술이 다량으로 필요하였음
- 국가적 필요에 의한 양질의 술을 다량으로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술을 제조하고 보관, 공급하는 전담 관청이 필수적이었을 것.

2. 주점(酒店)의 설치와 양온서의 성립

- 성종 2년(983년), 성례(成禮)·낙빈(樂賓)·연령(延齡)·영액(靈液)·옥장(玉漿)·희빈(喜賓)의 관영 주점(酒店) 6개소 설치,[8] 성종 이전의 경우 고려시기의 술 관련 관청 또는 기구의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양온서의 명칭은 문종 이후부터 등장[9]
- 성종 이전 시기는 상식국(尙食局)에서[10] 술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였거나, 양온서의 전신에 해당하는 관서에서 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자료 미비
- 기존 연구 성과에서는 주점의 설치가 성종대 이래로 추진된 화폐 유통을 위한 방안이자 술에 대한 통제를 통한 이익 확보 목적으로 해석[11], 주점의 설치와 국가의 술 생산/유통 관련 언급 無
- 국가의 통제 하에 6개소의 주점을 운영한 것은 술의 판매를 통한 화폐 유통의 목적과 함께 상시적 술 생산, 유통 구조의 성립으로 볼 필요 有.
- 성종대는 고려의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되던 시기로, 다양한 국용(國用)에의 술 생산과 공급을 위해 다량의 술 주조 및 공급 구조의 체계화 필요
- 특히, 성종대에 이르러서야 원구(圓丘)에 제사지내고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세웠다는 기록[12]은 국가적 의례 정비와 이의 실행을 위한 술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필요하였음을 암시하며, 이러한 필요성이 주점 설치와 연계되었을 것
- 증류주 제조법 및 살균법이 도입되기 전이었던 고려 전기 성격 상 곡류와 물, 누룩으로 만든 술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 발효가 이루어진 뒤에야 음용이 가

도사연구』, 78~79쪽)가 제시된 바 있음

8) 고려사 > 卷三 > 世家 卷第三 > 成宗 2年 > 10월

9) 고려사 > 卷七十七 > 志 卷第三十一 > 百官 二 > 사온서

10) 고려사 > 卷七十七 > 志 卷第三十一 > 百官 二 > 사선서

11) 정용범, 2014,「고려시대 酒店과 茶店의 운영」,『역사와 경계』92, 5~6쪽

12) 고려사 > 권59 > 지 권제13 > 예1(禮 一) > 예 서문

능하며, 완성된 뒤 역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산패(酸敗)하여 음용이 불가능함

- 상시적인 다량의 술 공급을 위해 세곡(稅穀)을 활용해 미리 술을 주조한 뒤, 이를 별도의 창고(酒庫)에 보관, 국용(國用)에 충당하고 여유분을 주점 6개소에 운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술의 산패(酸敗)를 막고 이익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임
- 주점 6개소 및 주점에 이어 등장한 주무(酒務)[13]의 통합 관리, 국용(國用) 술의 생산과 유통, 공급 전담을 위한 관청으로 양온서가 성립하였을 것

3. 양온서의 변천과 직제 변화

- 양온서는 문종대에 처음 기록이 확인되며, 이후 장례서(掌醴署) → 양온서(숙종 3년, 1097) → 선송주색(宣送酒色)을 혁파하여 양온서에 통합(충렬왕 5년, 1279), 사온서(충렬왕 34년, 1308) → 양온서(공민왕 5년, 1356) → 사온서(공민왕 11년, 1362) → 양온서(공민왕 18년, 1369) → 사온서(공민왕 21년, 1372) 順으로 변천[14]
- 관서 자체의 성격과 직장(職掌) 변화는 미비, 원 간섭기에 명칭이 자주 교체된 것은 대원 관계의 변화 및 정치 주도 세력의 교체 등과 관련[15]
- 양온서 최초 설립 시 양온령(-令) 2인은 정8품, 양온승(-丞) 2인은 정9품 → 양온서의 업무를 중시하고 관장자들의 직위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16]
- 양온서에 배정된 관리의 직급이 후대로 갈수록 상승(정8품→정5품), 소속 관원 수도 점차 증가(양온령2+양온승2 → 양온령3+양온승3+ 직장2+부직장2)
- 충렬왕 시기 선송주색(宣送酒色)과의 통합, 우왕대 별주색(別酒色)의 설치[17]는 군(軍)에 대한 술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였음을 보여주며, 양온서의 역할 역시 軍 위무(慰撫)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보여줌과 함께 양온서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Ⅲ. 양온서의 운영과 기능

1. 양온서의 술 생산과 공급

- 양온서에서 생산한 술은 '양온'으로 불렸으며, 청주(淸酒)와 법주(法酒)의 2가지 종류가 있었고, 맛과 색이 뛰어난 고급 술로 쉽게 취하고 빨리 깬다는 기록[18]

---

13) 고려사절요 > 고려사절요 권6 > 숙종명효대왕1(肅宗明孝大王一) > 숙종(肅宗) 7년 > 12월
14) 고려사 > 卷七十七 > 志 卷第三十一 > 百官 二 > 사온서
15) 이익주, 1992,「충선왕 즉위년(1298) '개혁정치'의 성격 : 관제(官制) 개편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7, 이강한, 2009,「공민왕대 관제개편의 내용 및 의미」,『역사학보』201, 이정훈, 2012,「忠宣王代 官制 改革과 관청간의 統屬관계」,『한국중세사연구』32 참고,
16) 박용운, 앞의 책 228쪽
17) 문형만, 1985,「고려특수관부연구 - 제사도감각색의 분석」,『역사와 경계』9, 부산경남사학회

- 청주와 법주는 같은 재료(쌀+누룩+물)와 같은 방법으로 주조한 동일한 술이나, 제사용으로 사용되는 술을 별도로 법주라 일컫고 별도로 보관한 것으로 보임
- 고려에는 찹쌀이 없어 멥쌀로 술을 빚는다는 고려도경의 기록은 서긍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고려시기에 이미 찹쌀이 경작되고 있음[19)]
- 멥쌀로 주로 술을 빚은 이유는 찹쌀의 희소성, 찹쌀로 술을 빚을 경우 멥쌀로 빚었을 때보다 당도는 높지만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는 점 등으로 보임
- 고려인들이 술을 좋아하였으며, 좋은 술을 구하기 어려워 민서(民庶)의 경우 백주(白酒=濁酒, 막걸리)를 주로 마셨다는 기록[20)]. 청주는 왕실과 귀족이, 백주는 일반 서민들이 주로 마셨으나, 경제 여건에 따라 구분 없이 마시기도 하였음[21)]
- 양온서의 관서 성격 상 국왕과 밀접, 내성 밖(廣化門 外) 관도(官道) 중심부에 위치하여 궁궐과 매우 밀착하여 위치[22)]
- 양온서가 관도에 위치하였고, 주조(酒造)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과 양질의 물을 구하기 어려웠던 만큼, 양온서에서 술을 직접 빚기는 곤란했을 것
- 양온서에서 조달한 술의 제조 장소로 양온동(良醞洞)이 주목됨
- 양온동의 경우 양온서의 관서명과 동일한 지명을 쓰고 있다는 점, 양온동이 개경 교외의 야매산 아래 앵계(鶯溪)와 밀접하여 양질의 물을 구하기 용이하였던 점, 이규보의 저택이 앵계에 위치하였는데 그 집과 주점이 맞닿아있었다는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양온동이 양온서의 주조(酒造) 장소이자 이와 연계한 주점(酒店)이 있었던 장소로 보임
- 양온동에서 술을 주조한 후, 양온서로 운반하여 주고(酒庫)에 보관하다가 관청이나 왕실의 필요 시 조달하고, 다량의 술이 일시에 필요할 경우에는 양온서의 주관 하에 양온동에서 바로 필요처로 조달되었을 것
- 충렬왕대 도병마사 건의로 조양도제고(造釀都祭庫)를 설치해 술을 빚어 바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23)] 고려 후기에는 양온동에서 주조한 술을 제례 등에 조달하는 방식을 탈피해 조양도제고를 별도로 두고 술의 생산과 조달을 담당
- 이는 양온동에서의 술 생산이 고려 후기의 경우 민간의 영역으로 이양되어 양온동의 술 생산이 금주령으로 인해 중지되고, 이의 대안으로 조양도제고를 두어 직접 생산하게 한 것으로 보임

---

18) 선화봉사고려도경 >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2 기명(器皿) > 와준(瓦尊).
19) 박용운, 앞의 책 31쪽
20) 선화봉사고려도경 >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2 기명(器皿) > 와준(瓦尊).
21)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3, 고율시, 백주시일수병서
22) 선화봉사고려도경 > 『선화봉사고려도경』 권16 관부(官府). 단, 고려도경에서는 '양온국(良醞局)'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양온서의 이칭(異稱) 또는 오기(誤記)로 보임.
23) 고려사 > 권85 > 지 권제39 > 형법2(刑法 二) > 금령 > 편년 금령

- 고려 중기 앵계에 거주한 이규보가 자신의 저택과 맞닿은 주점(酒店)에서 술을 자주 구입, 음용한 사실에서도 양온동의 술 생산과 유통이 민간의 영역과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술의 보관 또는 음용을 위해 사용한 준(樽=尊), 합(榼), 앵(甖=罃), 호(壺), 분(盆), 배(盃), 잔(盞) 등이 고려도경에 그 생김새 및 종류와 쓰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일본에 소장중인 '양온명무유병(良醞銘無油甁)',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인 '을유사온서명매병(乙酉司醞署銘梅甁)',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중인 '청자상감버들문양온명편병(靑磁象嵌버들紋良醞銘扁甁)'이 확인되는데, 청주와 법주를 질그릇 술독(瓦尊)에 담아서 누런 비단으로 봉해두었다는 기록[24]과 일치하며, 고려시기 술의 보관 용기와 보관 방법을 알 수 있는 사례임. 술의 보관을 위해 양온서에서 별도의 용기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관리하였을 것

2. 국가 의례와 양온서

- 고려는 태조대의 경우 나라를 세운 초창기인지라 예의를 논할 겨를이 없었으나, 성종대부터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제향(祭享)[25]
-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의 5례가 국가적 의례로 중시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술의 공급을 양온서가 담당
- 길례가 특히 중시되어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의 세 단계로 다양한 제의가 행해졌으며, 각 제의 시 제주(祭酒)가 필수적.
- 양온서는 길례 시 옥과 폐백을 올리는 일(奠玉帛), 술 항아리에 술을 담는 일(實尊醴, 實酒尊), 신위에 예찬을 차리는 일(實禮饌) 등을 담당
- 제사일 당일 새벽(未明 3角 또는 4角) 양온령이 소속 관리를 인솔하여 준, 뇌, 옥, 폐백(尊·罍·玉·幣)을 채우거나[26], 술 항아리에 단술(醴)을 담아 두거나,[27] 물과 술로 준과 이를 채우는(實尊彝) 일을[28] 맡아 수행
- 물과 술을 담는 용기의 종류가 다양하며(罍,尊,彝,爵...) 술의 종류도 다수 확인. 물의 경우 명수(明水) 또는 현주(玄酒)로 표현, 범제(泛齊), 예제(醴齊), 앙제(盎齊), 청주(淸酒), 제제(醍齊), 침제(沉齊), 사주(事酒), 석주(昔酒)등 술의 제조 방법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술이 사용됨
- 친사의, 유사섭사의, 사직제, 체협친향의, 향의, 석전의, 풍사·우사·뇌신·영성 제

24) 선화봉사고려도경 >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2 기명(器皿) > 와준(瓦尊).
25) 고려사 > 권별 보기 > 志 > 지 권제13 > 예1(禮 一) > 예 서문
26) 고려사 > 권59 > 지 권제13 > 예1(禮 一) > 길례대사 > 환구 > 친사의
27) 고려사 > 권66 > 지 권제20 > 예8(禮 八) > 가례 > 왕태자 관례 의례 > 여정궁 진설
28) 고려사 > 卷六十一 > 志 卷第十五 > 禮 三 > 길례대사 > 태묘 > 유사섭사

의, 마조제의, 선목·마사·마보 제의, 사한 제의, 여정궁 진설 등 다양한 국가 의례에서 양온령이 제주(祭酒)의 공급과 진설을 담당

- 길례 외 흉례, 군례, 빈례, 가례 시 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연등회와 팔관회의 경우 소요되는 술의 양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29]
- 국가 의례의 대부분이 고급 주류를 다량으로 필요로 하였던 만큼, 이의 생산과 공급을 맡아 본 양온서는 술 공급을 통해 국가 의례를 지원하는 중요 역할 담당

3. 국왕의 통치 행위와 양온서

- 양온서는 국왕의 통치 행위와 관련된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술의 공급 역시 담당하였을 것
- 지공거와 동지공거의 노고에 대한 국왕의 치하,[30] 과거 급제자에 대한 국왕의 축하연(御宴),[31] 국로(國老)에 대한 수연(壽宴)[32], 외국 사신에 대한 주연(酒宴)[33] 등 국왕이 주도하는 여러 연회에 술이 지속적으로 소비되었으며, 전공(戰功)을 세운 장수에 대한 사여(賜與)[34], 열병식 군인들에 대한 사여[35], 신하에 대한 사여[36], 노인 및 환과고독(鰥寡孤獨)/절부(節婦)와 의부(義夫)/효자(孝子)·순손(順孫)에의 사여[37] 등 중신(重臣)에서 일반 민서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에 걸쳐 술이 사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 국왕이 직접 술자리를 열어 신하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치주(置酒)의 기록이 전 시기에 걸쳐 매우 빈번하게 확인. 특히 예종, 인종, 의종대의 기록이 상대적으로 다수 확인됨
- 국왕이 주관한 연회에 참여하거나, 국왕으로부터 술을 사여 받은 신하들의 경우 이에 대한 감사와 국왕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38] 이는 국왕의 연회 개최나 술 사여가 신하들의 충성 유도 및 왕권 강화 차원에서 활용되기도

---

29) 고려사 > 권별 보기 > 志 > 지 권제23 > 예11(禮 十一) > 가례잡의 > 상원 연등회 의식
30) 고려사 > 志 卷第二十二 > 禮 十 > 가례 > 동당 감시
31) 고려사 > 卷三十二 > 世家 卷第三十二 > 忠烈王 29年 > 7월
32) 고려사 > 권7 > 세가 권제7 > 문종(文宗) 3년 > 3월, 고려사 > 권10 > 세가 권제10 > 선종(宣宗) 3년 > 8월
33) 고려사 > 권10 > 세가 권제10 > 헌종(獻宗) 원년 > 2월, 고려사 > 권10 > 세가 권제10 > 헌종(獻宗) 원년 > 5월 >
34) 고려사 > 卷四十五 > 世家 卷第四十五 > 恭讓王 2年 > 10월, 고려사 > 世家 卷第四十六 > 恭讓王 3年 > 9월 >, 고려사 > 列傳 卷第二十六 > 諸臣 > 정지 >
35) 고려사 > 권12 > 세가 권제12 > 예종(睿宗) 2년 > 윤10월, 고려사 > 권13 > 세가 권제13 > 예종(睿宗) 4년 > 2월, 고려사 > 권13 > 세가 권제13 > 예종(睿宗) 4년 > 3월 >
36) 고려사 > 列傳 卷第二十四 > 諸臣 > 염제신, 고려사 > 권12 > 세가 권제12 > 예종(睿宗) 원년 > 12월, 고려사 > 권12 > 세가 권제12 > 예종(睿宗) 3년 > 2월 >
37) 고려사 > 권13 > 세가 권제13 > 예종(睿宗) 6년 > 1월 >
38) 동인지문사륙 > 동인지문사륙 권15(東人之文四六 卷之十五) > 계(啓) > 좌주(座主)인 김양경(金良鏡) 상국(相國)께 의발(衣鉢)을 감사하며 올린 계(啓)

하였음을 보여줌

- 예종, 인종, 의종대의 치주 기록이 다수 확인되는 것 역시 해당 시기 왕권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에서지지/친위세력 확보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관련하여 양온서의 술 생산과 조달은 국왕의 통치 행위를 보좌하고 왕권 강화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양온령, 양온승에 임명된 인물과 이들의 활동을 통해 양온서의 역할이 왕권 강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추정
- 『고려사』를 통해 확인한 양온령에 임명된 인물로 지창흡,[39] 정극온,[40] 이상로,[41] 최충헌[42] 등이 보이며, 양온령에 제수되어 '내시(內寺)'에 속하였다는 점이 공통적
- 고려시기의 내시는 국왕 측근의 근시(近侍)이자 근신(近臣)으로 국왕을 옆에서 모시는 만큼, 그 지위나 역할에 비해 중시되었으며, 왕명의 출납, 국가의 창고와 같은 국가기구의 관리, 공역의 감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43]
- 양온령으로 임명된 인물 중 이상로의 활동이 주목됨. 이상로는 부(父)가 묘청의 난에 연루되어 유배형에 처해진 몰락한 가문 출신임에도, 의종의 족질(足疾)을 치료한 공으로 양온령에 전격 발탁되어 내시에 소속되었으며, 의종의 총애를 받아 낭관(郎官)에 이름. 명종대에는 당대인들이 이상로의 무식함(無學術) 비웃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부상서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임. 양온령이 국왕의 최측근으로 활약해가며 신분상의 약점을 극복하고 최고위계층까지 진출한 사례
- 『고려묘지명집성』을 통해 확인한 양온령에 임명된 인물로 김지우, 박황, 유광식, 이자연, 이자효[44] 등이 확인되는데, 양온령 동정(同正)으로 처음 입사하여 대다수가 고위직에 진출함. 이자연, 이자효의 경우 당대의 대표적 문벌귀족인 경원 이씨 일족. 양온령 동정직이 유력 귀족가문 자제의 입사(入仕)에 주로 활용되었으며, 이 경우 최고위직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
- 양온승으로 임명된 인물로는 이광진,[45] 김열보, 김영석, 노탁유, 안직숭, 유석, 정항, 최함이[46] 확인. 양온승 동정직으로 입사(入仕)하여, 역시 다수 인물이 고위직으로 진출.

---

39) 고려사 > 권14 > 세가 권제14 > 예종(睿宗) 11년 > 12월
40) 고려사 > 권101 > 열전 권제14 > 제신(諸臣) > 정극온
41) 고려사 > 卷一百二十二 > 列傳 卷第三十五 > 方技 > 이상로
42) 고려사 > 卷一百二十九 > 列傳 卷第四十二 > 叛逆 > 최충헌
43) 김보광, 「고려전기 내시의 구성과 역할」, 『한국사학보』13, 126~130쪽
44) 고려시대 금석문·목간 > 묘지명·묵서명 | 墓誌銘·墨書銘 > 김지우, 박황, 유광식, 이자연, 이정 묘지명
45) 고려사 > 권95 > 열전 권제8 > 제신(諸臣) > 이자연 > 이광진
46) 고려시대 금석문·목간 > 묘지명·묵서명 | 墓誌銘·墨書銘 > 김열보, 김영석, 노탁유, 안직숭, 유석, 정항, 최함 묘지명

- 양온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양온령, 양온승 등 양온서의 관직을 통해 문벌 귀족은 국왕의 측근 세력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국왕은 귀족 자제를 측근 세력으로 육성하여 왕권 강화에 이바지하는데 활용

Ⅳ. 결어

- 양온서를 전론(專論)한 연구, 양온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종합적 성격 규명
- 성종대 관영 주점의 설치는 화폐 유통의 목적과 함께 국용(國用)에 필요한 술의 생산, 공급 체계과도 연관
- 양온서는 국가 의례, 국왕 주관 행사, 신하/군인/민서에의 사여 등 다양한 용도로 필요한 고급 주류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맡아 보기 위한 목적에서 성립
- 양온서의 기록은 문종대에 처음 확인되며, 이후 장례서, 사온서로 여러 차례 명칭과 직제 변화. but, 관서 자체의 성격과 職掌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후대로 갈수록 관장자의 직위가 상승하고 소속 관원 수가 증가, 선송주색과의 통합 등을 통해 볼 때 양온서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
- 양온서는 주로 淸酒 등 고급 주류 생산, 필요시 즉시 조달 가능하도록 궁궐과 매우 밀착하여 위치
- 양온서에서 술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양온동에서 주조한 뒤 이의 보관/공급을 양온서에서 맡아보았을 것
- 술의 보관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보관 용기의 생산에도 관여, 용기 관리 역시 양온서의 중요 기능
- 국가의례에 필수적인 요소가 祭酒였던만큼, 술의 생산과 공급이 양온서의 주요 기능이었으며, 양온령이 국가 의례 시 술의 직접적인 공급과 진설 담당
- 공로자에 대한 연회, 외국 사신 접대, 전공자에 대한 사여, 연등/팔관회 등 국왕이 주도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술이 필수적으로 소요, 이의 공급도 양온서 역할
- 치주(置酒)의 경우 국왕이 신하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충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자주 시행, 역시 양온서가 술 공급, 국왕의 통치행위 뒷받침 / 왕권강화 이바지
- 양온령, 양온승에 임명된 관리의 경우 국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 국왕의 총애를 바탕으로 최고위직에 오르는 경우 다수. 양온령/양온승 동정직이 유력자 자제의 음직(蔭職)으로 제수되는 경우 多. 국왕의 통치 행위를 다양한 방면에서 보조하는 기구였기에 국왕 측근 관서의 역할 부각
- 양온서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고려시대에 차지했던 술의 역할과 위상에 주목하여 술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주목한 후속 연구 필요. 정치사적 의미와 함께 고려시기의 사회, 경제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사' 연구도 의미.